

무인도의 쓰레기

얼만 전 한국에 있는 한 무인도에서 20여년을 혼자 살고 있는 5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. 한국에서 IMF가 있을 후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을 뒤로하고 머리를 식히기 위하여 찾은 곳에서 20여년을 혼자서 산 것이다. 그는 혼자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. 늘 강한 바람 때문에 천막이 망가졌고, 날씨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20여 년 동안 무인도에서 많은 것을 터득하여 이제는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맛있는 해산물을 먹고 직접 지은 농사로 얻은 싱싱한 식물이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다.

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? 쓰레기가 그를 살렸다고 했다. 그 쓰레기는 바람을 타고 바다에 떠돌던 것들을 의미한다. 바람이 심한 날과 태풍이 있었던 때에는 더욱 귀한 보물들을 얻었다고 설명 했다. 섬 한 쪽에 몰려 온 쓰레기를 말한다. 그 쓰레기 중에는 신발도 있었고, 의자로 사용할 만한 것들과 생필품으로 사용할 만한 모든 것이 있었다.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며 어렵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는 어렵지 않았고 세상과 멀리 하고 있지만 많은 행복과 그 삶에 익숙한 건강을 누리고 있었다.

그날 이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퍼즐 식으로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늘 부족하고 쪼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았다. 실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무인도에서 밀려온 쓰레기를 모아서 집을 짓고 사는 그 사람보다 못한 행복을 누린 격이 된 것이다. 내 스스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. 생각을 조금 바꾸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를 깨닫고 인생의 퍼즐을 맞춘다면 그야말로 멋진 그림과 같은 인생을 살아 갈 텐데 말이다. 건강의 퍼즐, 물질의 퍼즐, 사업의 퍼즐, 가정의 퍼즐, 더 나가서는 믿음 생활의 영적인 퍼즐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멋진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가? 생각된다.

하지만 그 인생의 퍼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그것은 욕심일 것이다. 지금의 것에 감사하고 살지 않고 더 나은 그 어떤 것에 나의 욕심이 맞추어 질 때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그림을 맞추지 못할 것이 뻔하다. 하지만 무인도 그 사람은 전혀 맞지 않는 쓰레기로 자신의 인생이라는 생활의 퍼즐을 모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.

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**“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”** (시편 34편 10절)라고 하신다. 이 말씀은 나의 힘과 열심으로 아무리 뛰어 다녀도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는 부족함 없이 누린다는 말씀이다.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씀이다.

무인도에 그 사람이 쓰레기를 보았을 때에 낙심과 절망뿐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다. 하지만 그는 쓰레기가 다이아몬드 보다 더 나은 선물이라고 여길 때에 그 쓰레기로 삶을 이루었고 풍성히 누렸던 것이다.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돈의 액수나 건강의 횡수로 여기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 알 때에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이루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다.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.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.

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똥한 것을 추구하고 기대하며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신다.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흠뻑 젖어서 세상을 이기며 모든 것을 이루라고 하신다.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넓고 큰 지 다시 한 번 감사와 헌신을 올려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겠다.